

나는 住宅設計를 이렇게 본다.

安 瑛 培

(서울産業大學建築工學科 教授)

1. 住宅設計란

建築設計中 가장 많은 것이 住宅이고 누구나가 가장 時間을 많이 보내면서 生活하는 곳이 바로 住宅이고 보면, 建築家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가 바로 住宅設計임이 틀림 없다.

住宅設計는 작으면 작은대로 設計하기가 힘이 들고 또 한 크면 클수록 힘이 들기도 한다. 設計作業도 쉽게 하려면 쉽게 되고 잘하려면 끝이 없는 것이 住宅設計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方法도 다르기 때문에 집의 모양도 사람에 따라 各樣各色이다.

建築計劃책에 보면 設計時 유의해야 할 基本理論과 知識이 상세하게 잘 쓰여져 있지만 理論대로 잘 안되는 것이 住宅設計이고 때로는 理論대로 하는 것이 반듯이 잘된 設計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 또한 住宅設計이기도 하다.

大學을 바로 나와서 바로 住宅設計를 하게 되면 工學技術的인 면에서 많은 失手를 하게 되지만 技術이 점점 蓄積됨에 따라 工學的 側面外의 技術이 더욱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住宅設計는 人間生活을 經驗해가면서 새로운 局面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흔히 建築作品이 바로 建築家의 自画像이라고 하지만 住宅作品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서 設計者는 人間生活에 대한 꾸준한 研究와 함께 反省을 소홀히 해서는 안됨을 자주 느끼곤 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住宅設計를 하면서 經驗하고 느꼈던 點 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點에 대한 筆者의 見解를 記述해 보고자 한다.

2. 크라이언트와의 對話

흔히 建築家들은 일반 사람들은 建築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理解조차 잘못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특히 住宅에 관한한 크라이언트는 너무나 깊은 知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들은 建築에 대한 工學技術的 側面은 미약하지만 生活經驗에 의한 住宅像에 대하여는 建築家를 능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住宅에 대하여는 自身있는 一家見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住宅設計를 통해서 크라이언트에게서 배운점이 너무나 많다. 특히 主婦들의 意見은 細心하고 치밀한 部分까지 파고들어가는

때는 때로는 놀랄 경우도 적지 않다.

부엌 주변에 대하여서는 建築家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당연하지만 設備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知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오랜 生活의 經驗에서 얻어진 것이고 일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는 집들은 熱心히 찾아다니고 있으며 심지어는 外國의 旅行을 통해서 幅넓은 知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훌륭한 建築作品이 이루어지려면 훌륭한 크라이언트와 훌륭한 建築家, 그리고 좋은 싸이트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지만 적어도 住宅設計에 한한한 建築家와 크라이언트와의 共同作品이라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建築에 대하여 잘 理解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論理的으로 說明해 나가면 충분히 理解가 잘 간다. 設計技術은 없어도 좋고 나쁜점에 대한 理解는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點에서 크라이언트의 沒理解로 좋은 作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建築家들의 지나친 作品意慾으로 때로는 희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하게도 된다.

일반인들은 建築에 대한 단편적인 知識에 대하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을 綜合하는 技術이 이들에겐 없는 것뿐이다.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큰 住宅을 設計하거나 지나치게 複雜하고 無理한 構造로 된 그로테스크한 住宅을 設計하는 일은 우리 建築家들이 크게 삼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라이언트가 入住者가 아니고 事業者인 경우는 오히려 이와 반대일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事業者들은 目前의 利益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住棟을 配置할 것을 要求하거나 공사하기에만 쉽도록 單調한 設計를 要求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또한 建築家는 단순한 技術적인 충족과 許可수속만을 위주로 하는 일은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建築은 그 時代의 文化의 尺度가 된다고 한다. 建築家만의 努力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時代의 背景과 文化水準이 크게 作用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建築家들의 比重이 가장 크다고 본다. 크라이언트와의 꾸준한 對話를 통해서 建築에 대한 올바른 理解로 誘導해서 우리는 훌륭한 建築을 이룩하는데 좀더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兩面性

建築에는 二律背反的인 두 要素를 모두 포용해야 하는 兩面性이 적지 아니 存在하지만 그 중에서도 住宅建築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한 것 같다.

建築에 필요한 여러가지 要素中 어느 한곳에 置重하면 이와 反比例해서 다른 要素에 害로운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建築家は 調整者(Coordinator)라고도 한다. 이제 住宅建築에서 二律背反的인 兩面性을 지녀야 하는 要素들을 몇가지 열거해 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추녀의 깊이를 생각해 본다. 추녀는 비를 막고 햇빛을 가려주는 構造部分으로서 이것이 짧으면 室内가 밝아지고 겨울에 Solar Energy의 活用이 커지는 반면에 이것이 깊으면 비가 올때 壁이 젖지 않고 窓門을 열어놓을 수 있어서 좋다.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韓式構造에서는 추녀가 깊었는데, 이것은 비가 자주 오는 우리나라에서는 不可缺한 要素이었다. 그러나 構造技術의 發達로 壁이 젖는 것은 充分히 防止할 수 있으며 最近에는 Oil Shock로 인해 Solar Energy의 括用面이 重要視됨에 따라 추녀의 깊이는 짧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추녀의 깊이는 이러한 科學的 側面보다도 形態上의 문제로 크게 左右되기도 한다. 幾何學的인 形態構成에서는 추녀의 깊이는 큰 障害가 된다. 그리고 지붕 추녀를 깊게 하는 形態에서는 平面計劃에 적지 않은 制限을 加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建築家들은 추녀가 짧은 것을 挾하는 경우가 많으나 깊은 추녀의 長點은 비가 많이 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버릴 수 없는 點이라고 하겠다.

如何間 지붕 추녀의 깊이는 兩面性을 지녀야 중요한 要素임에는 틀림없다.

두번째로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본다.

住宅에서 居室과 食堂은 家族이 단란하게 지내는 社會圈이고 個室은 “프라이버시”가 커야하는 個人圈에 屬하므로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現代住宅의 새로운 要素로서 크게 등장하고 있다.

이 프라이버시라는 用語를 우리말로 獨立性이라 부르고 있으나, 잘 부합되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傳統住宅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창호지도 구획된 창문이나 출입문이 프라이버시를 극히 剝奪하고 애매하게 해왔다.

西洋文明이 들어오면서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現代住宅에서는 클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해왔으나 最近에는 이에 대한 생각이 약간 변하기 始作했다. “지오포티”의 著書인 “建築禮讚”에 보면 建築과 女人이란 항목에서 프라이버시를 높이기 위해 兒童室을 격리하려고 하는 建築家에게 집에 들어서면서 어린애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왜 나쁘냐고 反問했다는 것을 보면 西洋에서도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融通性있게 括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의 규모가 커지면 二층의 個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랫층에서는 알 도리가 없다. 最近의 外國의 住宅作品에서 보면 内外室間의 相關이란 用語와 함께 上下室間의 相關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윗층과 아랫층이 서로 相關되므로서 一층에서도 二층에 있는 家族들의 行動이 어느程度 感知될 수 있게 하는 것은 家族生活이린 觀點에서 보면 극히 필요한 要素라고 생각된다.

즉 住宅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너무 커도 나쁘며 또한 너무 적어도 나쁘다. 이것을 적절히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設計者의 큰 과제라고 생각된다. 집의 규모도 너무 커지면 오히려 家族間의 단란이 적어지며 또한 너무 작으면 프라이버시가 크게 희생이 된다. 확실히 프라이버시는 兩面性을 고려해야 할 重要한 要素로 되고 있다.

이밖에도 兩面性을 필요로 하는 要素는 많다. 人間의 快適한 空間을 위해서 空間의 閉塞性과 開放性을 들수 있으며 그밖에 内部空間의 外部空間과 外部空間의 内部空間을 들수 있겠다.

空間變化의 多樣성과 秩序, 또는 抵層高密住居라는 개념도 또한 兩面性을 要하는 點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住宅設計에 있어서는 二律背反的이고도 兩面性을 無視못할 點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교묘히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建築家에게는 흥미가 있는 重要한 課題라고 생각된다.

4. 團樂生活圈의 位置.

個人生活圈에 對한 社會圈이라고도 불리우는 家族 단란의 場所인 居室과 食堂 部分은 住宅設計의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곳으로서 그 位置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住宅設計時에는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단란생활권은 個人生活圈과 구분되어 집의 中央에 있지 않고 한쪽 側面에 位置하는것이 個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좋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로 집의 中央에 位置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다. 居室이 집中央에 있으면 居室의 一部分이 通路가 되어 프라이버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安定感이 적은것이 큰 결함으로 되어 있다. 居室이 한쪽 側面에 位置시키면 壁面이 커지고 바로위에 二층을 두지 않으면 天井의 高底變化도 容易하고 室内의 家具配置를 비롯한 空間構成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가 쉬운點등 有利한 點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韓式住宅에서 대청마루의 位置가 방과 방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전통적인 理由에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원하게 開放되는 것

을 좋아하며 個室의 連結부도를 따로 둔다는것을 面積의 浪費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家長이 안방에서 바로 나와서 利用하기 쉽고 또한 모든 家族들도 쉽게 모일수 있는 點을 慣習적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點에서 아무리 合理的이고 기능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慣習을 無視하고 설계한다는 것도 또한 妥當한 일은 아니다.

나 自身은 오랜동안 居室이 獨立性이 높은 집에서 生活해 보고 居室의 獨立性이 높은 點이 얼마나 便利한가를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모든 크라이언트에게 반드시 強要는 안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두가지 兩面性을 모두 充足시킬수 없는가를 建築적으로 試圖해 보기도 한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에는 하나 이것을 잘 解決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나라 住宅의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할것 같아서 筆者自身の 住宅에서도 실험적으로 試圖해 보았다. 人間은 모든 環境에 잘 適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住宅에서 生活해 보고 居室이 中央에 있는 長點을 새삼스럽게 実感하고 있다.

住宅은 限없이 試圖해서 生活해보고 느끼면서 보다 나은 새로운 空間으로의 追求해 나가는 것은 建築家의 큰 즐거움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집이 낮아서 一층에서는 展望이 좋지 않아서 展望이 좋은 二층에 居室을 두고 보면 主된 生活圈이 分離될것을 걱정도 해 보았지만 막상 試圖해보곤 그 나름대로 長點을 지니고 있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住宅이란 一定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곤 한다. 아파트의 경우 한결같이 居室이 中央部分에 位置한 것이 大部分인데 이와같이 剛一的으로 하는것도 또한 문제이다.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에 텔레비를 보고 家族이 즐기는 곳이 中央홀격인 居室이고 보면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兒童들의 教育에 支障이 많은것도 고려해서 좀더 프라이버시가 있는 住宅의 平面構造도 研究해서 並行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住宅이란 아무리 한쪽 比重이 크다고 하더라도 剛一的으로 設計하는 일은 극히 삼가야할 일이다. 모든 사람들의 生活이 剛一的이 아니고 多様하듯이 住宅 또한 여러 사람들의 生活에 調和되도록 多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住宅의 규모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六·二五事變 당시 피난시절에는 단칸방에도 많은 가족들이 살아왔으며 최근에도 작은 주택에서 살아야하는 사람들의 數는 적지 않다. 人間이란 環境에 잘 適應해서 그런지 작으면 작음대로 또한 크면 크면 크대로 그런대로 그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生活하기 마련이지만 住宅을 設計하는 建築家의 立場에서 보면 生活方法에 따른 집의 규모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집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크면 클수록 좋다고도 생각이 되겠지만 반듯이 그렇지는 않은것같다. 家族人數에 비해 집의 규모가 크면 유지관리에 힘이들 뿐만 아니라 한 식구라도 外出하게 되면 허전하고 쓸렁해서 무섭다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오일쇼크로 인해서 그런 현상은 더욱 많아졌지만 큰집을 짓고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으며 살고있는 집이 커서 작은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주택이란 生活만 充足할수 있다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다. 動物들도 快適한 空間을 찾아가듯이 人間에게도 快適한 空間의 크기에는 限界가 있다. 家族들의 和合에는 空間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크게 作用한다.

그런점에서 주택의 규모는 可及의 줄일수 있는 努力이 필요한것 같다.

넓은 대청마루같은 居室이 있고 그옆에 안방이 있고 그뒤에 寢室이 있는 집이 한동안 유행처럼 되어 있으나 이런집은 이제는 지양해야할 것이다.

寢室의 크기도 家具配置를 잘 고려하면 상당히 작아질수 있다.

家具配置까지 잘고려하지 않기때문에 비교적 큰방이라도 効用性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루프루부제”는 2.26m角인 방에서 設計를 했다고 하는데 작은 방이 家具配置를 잘 고려하면 대단히 有効하게 쓰일수 있다. 그밖에 寢室以外에 面積을 줄일수 있는곳이 浴室과 부엌部分이다. 浴室이라고 하면 으레히 正規 규격의 衛生器具들을 配置하는 것이 常例이나, 아파트나 일반 小住宅에서는 面積을 훨씬 줄일수 있는 可能性이 많다. 日本에서는 1.20m角인 작은 空間속에 浴室의 기능을 解決한 例도 있지만 우리나라 住宅의 浴室은 일반적으로 큰것처럼 보인다. 浴槽의 길이도 1.50m에서 1.20m로 줄일수 있으며 便器도 面積이 더 적게 차지하는 器具로 改良할수 있다고 본다. 浴室의 出入門도 너비(넓이)가 50cm이면 充分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할때, 적어도 小型아파트에서는 浴室의 크기를 줄일수 있으며 中型의 单独住宅에서도 浴室의 크기는 줄이는 努力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엌부분도 기구를 合理的으로 配置하면 콤팩트한 부엌이 더 기능적이다. 이밖에 居室計劃에서도 좁은 面積이지만 視覺적으로 넓게 보이도록 計劃技術의 開發이 努力如何에 따라 크게 成果를 거둘수가 있다.

이와같이 寢室, 浴室, 부엌등의 面積은 勿論 居室計劃도 좀더 콤팩트하게 치밀한 計劃을 하게 되면 住宅의 규모는 보통 10%에서 15%는 쉽게 축소될수 있다.

보다 작은 空間에서의 合理的 機能을 充足시키도록 하는 技術的 側面的 開發은 우리가 앞으로 크게 努力해야 할 點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間壁의 두께도 合理的인 壁面配置를 고려하면 1B에서

0.5B로 줄이고 外壁의 두께도 좀더 줄일수 있는 構造分野의 研究도 크게 要望된다.

6. 空間性

우리나라에서도 平面計劃을 空間計劃이라고 부르기 시작한지는 굉장히 오래된것 같으나 이러한 개념이 設計에 反映된 作品은 흔히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空間이란 概念이 단지 三次元的인 Physical란 面뿐만 아니라 人間的 理性이나 感性으로 체득되는 快適性을 追求하는 哲學的 見地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理解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設計에 나타내기란 더욱 어려울기 때문이다.

空間設計의 概念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言語들을 들어보면 Layering이니 Sense of Place이라던가 透明性등 새로운 言語들이 많지만 가장 基本的인 言語는 連續性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住宅設計時 흔히提起되는 實例들을 들어가면서 連續性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連續性이란 概念은 우리나라 古建築에서는 가장 重要한 要素로 생각되어 왔으며 現代建築에 있어서도 巨匠인 Frank Loyd Wright나 Mies Vander Rohe에 의해서 強調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장이란것이 傳統的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그런점에서 大門이란것을 크게 重要視하고 있으며 집의 인상도 大門에 의해 지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대문없는 西洋人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다.

住居室間의 進入은 이 大門에서부터 始作되며 大門에서 부터 현관까지의 過程을 어떻게 하느냐가 住宅設計에서는 重要한 課題이다. 이 過程은 너무길면 지루하고 짧으면 또한 單調롭다. 나의 經驗에 의하면 中間에 한번쯤 方向을 약간 變化시킬 필요가 있으며 進入함에 따라 庭園과 建物이 반기는듯한 인상을 주어야 하며, 建物밖에서의 空間의 連續性은 적절한 變化와 함께 이루어야 한다. 이사이의 空間은 外部와 住宅을 이어주는 이른바 過程的 空間으로서 連續性이 중요하게 要求되는 곳이다.

Charlce Moor는 현관을 住宅의 重要한 Landmark라고 했다. 현관의 포치 및 出入門의 모양은 個性이 필요하며 현관을 들어서서 内部空間이 展開됨에 있어서는 View의 展開, 다음 空間으로의 暗示등을 통해서 空間이 連續性을 지니고 變化시켜야 하는 것은 住宅設計中 가장 흥미 있는 課題라고 생각된다.

Turning Point에서 마다 變化되는 視覺的인 Target와 View가 너무 压迫感을 주지않고 적정거리에서 아름답게 展開되며 變化되어야 한다.

階段은 空間演出의 가장 좋은 要素임으로 이것을 잘 活用하면 아름다운 空間構成에 큰 効果를 얻게된다. 直線階段은 오르는데 힘이들기도 하지만 지루한것이 더 큰 문제이다. 人間은 그만큼 간사한 것 같다. 계단은 계단참이 있어서 잠깐이라도 쉬는것도 중요하지만 도중에 한번쯤 View가 바뀌는 것이 空間의 變化에 큰 도움이 된다.

空間을 시원하게 開放하기 위해서 한동안 居室上部가 二층까지 開放되는 例가 많았는데, Oil Shock로 최근에는 차차 사라지고 있는데, 집 어디엔가는 二층까지 시원하게 開放되는 시원한 空間은 꼭 필요한것 같다. 그런점에서 이 階段空間이 더욱 중요시 되는 것 같다.

住宅의 内部空間에서 가장 큰곳은 居室이기 때문에 空間構成의 技量을 발휘할곳이 居室이기도 하다.

内部空間 中에서 가장 크라이막스를 이루게 해야할 곳이 거실이며 이곳의 空間性이 가장 중요視 되어야 할 곳이다.

Frank Loyd Wright의 住宅設計를 보면 居室空間의 構成에 있어서 배울점을 많이 兪見할수 있다. Wright는 本來 Box Building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그의 住宅設計에서는 寢室에서까지도 Box 같은 空間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壁의 凹凸, 天井과 바닥 레벨의 高底變化, 食堂과의 多様な 平面構成, 壁난로를 中心으로한 特異한 空間의 構成등은 배울점이 대단히 많다.

비록 큰 空間이지만 停滯해 있는듯하면서 流動的이며 다른 空間으로의 連續性이 認知되어야 하며 적어도 작은 住居空間에서는 집 전체의 空間의 予解度가 높아야 한다.

흔히 上下층 空間의 分離현상을 막기 위해서 上下空間의 相關性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졌으면 하는곳이 居室이다. 또한 内外空間의 相關性을 높이기 위해서 마감 材料의 同質性을 높인다던가 유리를 통한 視覺的인 連關性등을 생각해야할 곳이 또한 居室이기도 하다.

住宅의 庭園도 또한 内部空間의 連續으로서 똑같은 개념에서 計劃되어야 할 것이다. 크고 작은 空間의 對比라던가 流動性있는 連續性을 지니게 해야 하는 点등은 内部的 居室을 中心으로한 空間構成과 별반 다를 바 없다.

自然속에서 물이 自然스럽게 變化되며 순환하듯이 우리의 日常生活의 容器인 住居空間 亦是 이와같이 自然스럽게 變化되며 連續性을 이루게 하는 것은 또한 自然的 攝理이기도 할 것이다. (※)